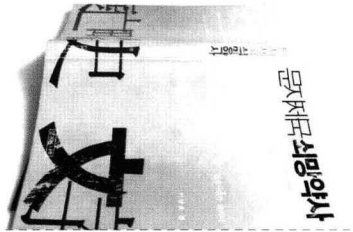


又

문자제국쇠망약사 선정기

전자시대에 말하는 자기개신의 의미...



허를 찢린 셈이다. 불황에다, 무더위까지 겹쳐 출판문화 역시 휴가중일 것이란 짐작은 보기 좋게 빛나갔다. 선정 테이블엔 쪽집이 대신, 때아니다 싶게 알곡이 가득했다. 12권의 책들,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었다. 인문, 철학, 문학, 그리고 시·공간을 넘나든 다채로운 저술을 석차 매기는 일에 〈출판저널〉 편집부는 혼란스러웠다. '이달'을 특정해 문화적 자양분이 가장 많은 책을 고른다는 일이 대체 온당한지 되물어보기도 했다. 행여 율력을 따라 문화적 시속時俗에 맞는 책을 짚어낸다는 게 지나친 작위는 아닐까 반성하기까지 했다.

그래서였다. 9월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후보작들의 책장을 넘기는 손끝은 여느때보다 조심스러웠다. 이이화의 《역사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김숙경의 《아주 특별한 만찬》, 김경일의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이남호의 《문자제국쇠망약사》, 조한혜정·우에노 치즈코의 《경계에서 말한다》, 이옥수의 생활동화 《푸른 사다리》, 김삼웅의 《백범, 김구 평전》, 조희연의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천규석의 《쌀과 민주주의》, 윤성희의 소설 작품집 《거기, 당신?》, 정민 외 3명이 함께 지은 《살아있는 한자교과서》, 쓰루미 요시유키의 《해삼의 눈》 등을 수도 없이 견주고 뒤집어보곤 했다. 하나같이 명분 뚜렷하고 기획이 빛나며, 메시지가 독보적인 그런 책들이다.

세삼 '양서'란 무엇인가? 그런 원초적 질문에까지 이르며, 기자들의 문화적 식견을 총동원한 결과 《경계에서 말한다》,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살아있는 한자교과서》, 《해삼의 눈》, 《문자제국쇠망약사》 정도를 짚어냈다.

'사람살이'란 대체 뭘까. 《경계에서 말한다》는 국경과 민족과 세대와 성적 경계를 교란하며, 이런 물음에 대한 담담하되 진지한 성찰을 말하는 책이다. 일본의 '세카이'와 한국 '당대비평'에 연재된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서신교환'을 묶어낸 이 책은 '경계적 주체' 너머의 애깃거리를 통해 또 다른 유의미한 '살(生) 거리'를 구한다.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구심점으로 한 한국사회의 동심원적 외연확장을 추구하는 책이다. 그 반경이 진보라 해도 좋고, 급진이라 해도 무방하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을 큰 눈으로 식별하되, 신·구 사회운동을 포괄하는 급진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의 정당성을 역설한다. 3부에 걸쳐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변화, 세계화·신자유주의·한국사회운동, 한국사회의 민주개혁과 사회운동의 방향을 진지하게 조망한다.

'웃고름을 열고(?) 풀어헤쳐(披) 부끄럽다'고 해서 '창피猖披'하다던가.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는

정녕 '살아있는' 한자 교양서다. 한양대 국문과 교수인 저자를 비롯한 4인은 깊이 있는 인문학적 경륜을 토대로 생활 내지 문화적 프리즘으로 한자와 한자 이야기를 들려준다. 삽화의 독창성이나 본문 구성도 탁월하다.

《해삼의 눈》은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다의 미물 해삼이 서식하는 모양새를 따라 환태평양 일원의 삶과 문화를 되짚어본 발상의 현장 보고서다. 실크로드 아닌, '해삼로드'를 처음으로 규명한 이 책을 보노라면, 인간과 자연의 무심한 조화를 이런 식으로도 함수지을 수 있겠구나 싶다.

최선의 지적 효용이랄까, 문화적 과례도 최적을 독자들에게 선사할 만한 한 권의 책을 고르기 위해 〈출판저널〉 기자들은 끝까지 고심했다. 고백컨대, 막판엔 두 권을 놓고 거수 擧手라는 졸렬한(?) 방법을 불사해야 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대신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에 뽑힌게 《문자제국쇠망약사》다.

《문자제국쇠망약사》는 '문자제국' 아닌, 우리 시대의 '지성제국'과 내면세계의 쇠망을 안타깝게 토로한 책이다. 텍스트 대신 이미지 중시의 디자인으로 바뀌는가 하면, 진중한 문자적 천착의 자리를 전자시대의 디지털 감각이 치환하고 있는 형국을 근심하고 있다. 정보와 통신이 무요류의 미덕으로 칭송받는 이즈음을 목도하는 기자들로선 공감이 갈 수밖에 없었다. 2002월드컵과 마르코니 성운, 내면성의 빈곤, 문학의 내파, 그리고 '소외의 독서와 독서의 소외' 등의 의제를 통해 저자는 인간 이성이 날로 조잡하고 천박해지지 않을까 저어한다. 허나 무기력한 한탄은 이 책의 본래적 권두언이 아니다. 착잡하게 문자제국 쇠망약사를 관찰하다가도, 정작 '전자사막에서 살아남기' 정신에 밑줄을 긋는다. 궁극엔 화려하고 감각적인 전자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자기개신의 의미를 말하려 한 게 바로 《문자제국쇠망약사》다. 기자들 역시 정신과 지식 세상의 개신을 소망해 온 만큼 그런 거수표결 결과에 군말없이 승복할 밖에 없었다. ■■